

**우리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짧은 말씀 묵상집 (40)]

제임스 김 목사 나눔

##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를 다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덤으로 주실 것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6:31-33, 현대인의 성경).

## 겸손하신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고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러하면 우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11:29, 현대인의 성경).

## 계속해서 악하고 죄 된 생활을 하는 교회 어른들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과 경고를 받고도  
그 말씀과 경고를 듣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불순종하면서  
계속해서 악하고 죄 된 생활을 하는 교회 어른들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우리가 그러한 교회 어른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참고: 스가랴 1:4-6, 현대인의 성경)

## 고통의 길을 걷게 되더라도 단련을 받아 ...

고통의 길을 걷게 되더라도 단련을 받아  
마음이 순금처럼 깨끗하게 되길 기원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보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5:8; 욥기 23:10; 42:5, 현대인의 성경).

## 곧 넘어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늘 나라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참고: 마태복음 13:20-21, 현대인의 성경).

## 교만을 반드시 꺾어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범죄한 사람들의 교만을  
반드시 꺾어 버리실 것입니다  
(참고: 스가랴 9:6, 현대인의 성경).

## 교회의 당회원인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에 ...

교회의 당회원인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에

완전한 조화가 있길 기원합니다

(참고: 스가랴 6:13, 현대인의 성경).

##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모든 교인들을 키질하여

알곡과 같은 성도들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와 같은 교인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3:12, 현대인의 성경).

## 그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덕분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법정에 넘길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우리 식구가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할 것입니다.

그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님이

우리가 할 말을 일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정에서도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10:17-22, 현대인의 성경).

## 그 위로가 헛될 뿐입니다.

우상은 거짓을 말하며 점쟁이는 헛된 환상을 보고  
거짓된 꿈을 말하니 그 위로가 헛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처럼 방황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사 그들을 보살필 것입니다  
(스가랴 10:2, 3, 5, 현대인의 성경).

## 그 이유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이나,  
자기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이나  
실제로 “이 미련한 놈아”하고 말하는 사람은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결국 지옥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살인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참고: 마태복음 5:21-22; 요한일서 3:15, 현대인의 성경).

## 그 형제와 화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

만일 우리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을 하고 난 후에

그 형제와 화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참고: 마태복음 5:23-24,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예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의 수많은 예배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에 이제 싫증이 났다’

‘나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누가 너희에게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하였느냐?’

‘너희는 내 성전 바닥만 밟을 뿐이다’

‘너희는 무가치한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말아라’

‘너희가 들는 예배도 나는 싫어졌다’

‘너희가 주일이나 종교적인 모임을 가지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차마 볼 수 없구나’

‘너희가 드리는 내가 싫어하는 예배는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되어 내가 감당하기에도 지쳤기 때문이다’

(참고: 이사야 1:11-14, 현대인의 성경).

### 그 흑암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죽음의 그늘진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큰 빛이 되시는 주님의 빛이 비치므로

그 흑암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4:16, 현대인의 성경).

## 그들이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입니다.

세상 끝 날에 천사들이 와서  
의로운 사람들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13:49-50, 현대인의 성경).

## 그들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진리의 법을 가르치고 ...

주님의 종들과 세우신 주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진리의 법을 가르치고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화평과 정직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 말라기 2:5-6, 현대인의 성경).

## 그들이 큰 슬픔에 잠긴 이유는 ...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고 3 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하고 말씀하시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마태복음 17:22-23, 현대인의 성경).

그들이 큰 슬픔에 잠긴 이유는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불신 속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 마가복음 8:33,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그들은 불신 속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보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기에 큰 슬픔에 잠겼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 없는 불신자들처럼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을 믿을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이 주님과 함께 있게 될 줄 믿을 것입니다 (참고: 데살로니가전서 4:13-17, 현대인의 성경).

## 그러므로 우리는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의로우시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참고: 스가랴 9:9, 현대인의 성경).



##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는데 ...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되면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구실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하고  
예수님에게 마음 속으로 물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참고: 마태복음 19:3-6, 현대인의 성경)

##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16:16-17, 현대인의 성경).

##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아주 보잘 것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10:42, 현대인의 성경).

## "그저 나오라는 말씀만 한마디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사는 한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백부장의 하인을 그의 집에 가서 고쳐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백부장은 “주님, 저는 주님을 내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나오라는 말씀만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올 것입니다”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백부장에게 “가거라.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고  
“바로 그 시각에 그의 하인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8:5-13,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주님도 놀랍게 여기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저도 본받고 싶습니다.  
비록 저의 믿음이 한 알의 밀(요한복음 12:24)처럼 매우 작지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창세기 1 장) 말씀이신  
주님(요한복음 1:1)의 입에서 하신 (약속의) 말씀 한 마디로  
(개인적으로 주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 장 1-15 절이고,  
교회적으로 받은 약속의 말씀은 마태복음 16 장 18 절임)  
만족하여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5:7, 현대인의 성경).

## “길 잃은 양”이었던 그 한 자녀를 찾게 되어 (구원받게 되어) 더 기뻐했습니다.

저는 세 자녀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길 잃은 양” 한 자녀를 위해 제 육신의 생명을 데려가시더라도  
그 자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케 하셨습니다.  
공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시사 그 자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길을 잃지 않은” 두 명의 자녀들보다  
“길 잃은 양”이었던 그 한 자녀를 찾게 되어(구원받게 되어) 더 기뻐했습니다  
(참고: 마태복음 18:12-13, 현대인의 성경).

## 나는 마음이 병든 위선자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여서  
마음 속으로라도 그 사람을 비판(판단)하면서  
입술로는 ‘나니까 당신을 생각해서  
당신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주겠다’고 말한다면,  
나는 마음이 병든 위선자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7:1-5, 현대인의 성경).

## 나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빼내어야 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았던 마음이 병든 위선자인 나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빼내어야 합니다.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7:3-5, 현대인의 성경).

## 나는 세상의 빛으로서 먼저 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

나는 세상의 빛으로서 먼저 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비치길 기원합니다.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길 기원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5:14-16; 요한복음 8:12, 현대인의 성경).

## 나의 착한 행실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해야 할 텐데 ...

나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갓아 주실 줄 믿고  
나의 착한 행실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해야 할 텐데 ...  
(참고: 마태복음 6:4, 현대인의 성경)

## 날마다 필요한 양식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참고: 마태복음 6:11, 현대인의 성경).

## 남에게 대접은 받고 싶어하면서 ...

남에게 대접은 받고 싶어하면서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대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마태복음 7:12, 현대인의 성경; 신명기 8:3).

##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5:7, 현대인의 성경).

##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나눈 대화를 듣고  
예수님에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하고 말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말대로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처음부터 결혼할 수 없는 몸으로 태어난 남자도 있고

불구자가 되어서 결혼할 수 없는 남자도 있으며

하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결혼을 포기한 사람도 있다.

이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마태복음 19:10-12,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하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10 절, 현대인의 성경).

특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 장 38 절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하는 말씀을 생각할 때

더욱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9:12, 현대인의 성경).

##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의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를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후

그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참고: 마태복음 9:9-13).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2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1)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참고: 에베소서 2:4).

(2) 긍휼이 여기는 우리는 복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5:7).

## 내가 밝히 보게 되어서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내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 할지라도 ...

내가 밝히 보게 되어서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내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들보로 여기고만 있다면

그 사람은 나의 도움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나를 마음 속으로라도 비판할 것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7:1-5).

## ‘너희 중 한 사람이 예배 당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예배 당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참고: 말라기 1:10, 현대인의 성경).

##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3-4).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그리고 비방이다”(15:19, 현대인의 성경).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대로 살지 않는  
우리에게 주님께서서는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하고 묻고 있습니다  
(참고: 말라기 3:7; 마태복음 22:37, 39, 현대인의 성경).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와 자매이며 어머니이다”  
(마태복음 12:50, 현대인의 성경).

**니스웨 사람들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순종한 요나 선지자와 같은 목사님의 전도를 듣고도  
니스웨 사람들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12:41, 현대인의 성경).

## 마태복음 20 장에 나와있는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한 3 가지 "왜?" 질문

마태복음 20 장에 나와있는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감독에게 “일꾼을 불러

나중 온 사람부터 차례로 품삯을 주어라”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중 온 사람은 오후 5 시에 그 포도원 주인이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후 5 시에 온 사람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그 때 그들보다 먼저 온 사람들인 오전 9 시쯤에 온 사람들과

오후 12 시와 오후 3 시에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한 것만큼 삯을

오후 5 시에 온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받을 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품삯을 받고 주인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더위에 시달리며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해 줍니까?”

(마태복음 20:1-12,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생각이 듭니다:

(1) 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감독에게 “일꾼을 불러

나중 온 사람(오후 5 시에 온 사람들)부터 차례로 품삯을 주어라”하고 말했을까요?

왜 그는 제일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오전 9 시쯤 되어 온 사람들)부터

차례로 품삯을 주라고 말하지 않은 것일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핵심 교훈인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16 절)는

말씀을 염두 해 두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2) 왜 먼저 온 사람들(오전 9 시쯤과 오후 12 시와 오후 3 시에 온 사람들)은

나중 온 사람들(오후 5 시에 온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받을 줄로 생각했을까요?

물론 상식적으로 오후 5 시에 온 사람들은 1 시간 밖에 일하지 않았고

자기들은 9 시간(오전 9 시쯤에 온 사람들), 6 시간(오후 12 시에 온 사람들),

3 시간(오후 3 시에 온 사람들)을 일했기에 계산적으로 보면

오후 5 시에 와서 1 시간 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일을 더 많이 했기에 더 많이 받을 줄 충분히 생각하고 기대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은 포도원 주인은 그 일꾼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2 절, 현대인의 성경)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품삯을 받고 그 주인에게

불만을 털어놓은 사람들 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네게 잘못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13 절, 현대인의 성경)

(3) 왜 포도원 주인은 오전 9 시쯤에 불러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게 한 사람들이나

오후 12 시와 오후 3 시에 불러서 일하게 한 사람들이나

오후 5 시에 불러서 일하게 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14 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마음 같으면 당연히 시간당 일한만큼 품삯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여

오전 9 시쯤에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했으면 9 시간 일한 품삯을 주고

(오후 6 시까지 일을 했으니까)(12 절), 오후 12 시에 와서 일했으면

6 시간 일한 품삯을 주고, 오후 3 시에 와서 일했으면 3 시간 일한 품삯을 주고,

그리고 오후 5 시에 와서 일했으면 1 시간 일한 품삯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나중에 온 이 사람(오후 5 시에 온 사람들)에게 너(아마 오전 9 시쯤이나

오후 12 시나 오후 3 시에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겠지만

모두 다 포함해서 이것이지요)와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마음이다”라는

사실(14 절, 현대인의 성경)과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나?”(15 절, 현대인의 성경)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로마서 9 장 20-21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그것을 만든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가 같은 흙으로 귀하게 쓰일 그릇과

천하게 쓰일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습니까?”

##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완고하게 등을 돌려 귀를 막고 우리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여  
성령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큰 진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참고: 스가랴 7:11-12, 현대인의 성경).

## 만일 주님이 원하셔서 내 병이 깨끗이 나았다면 ...

만일 주님이 원하셔서 내 병이 깨끗이 나았다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감사로 예배를 드려  
내가 질병에서 깨끗해진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8:2-4,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제 첫째 아기 주영이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녀는 그녀의 병에서 깨끗이 나음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제 품 안에서 죽었습니다(잠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주영이의 뺨가루를 물에 뿌리고 돌아올 때에  
굉장하고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찬양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주님은 저로 하여금  
제 딸의 죽음을 통하여 경험한  
주님의 놀랍고 굉장한 사랑을 증거케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저희 부부에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시편 63:3)는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 모든 동네들을 다 다니기 전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떤 동네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거든 우리는 다른 동네로 피해야 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곳 저곳으로 피하며

세상의 모든 동네들을 다 다니기 전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10:23, 현대인의 성경).

## 목사님들의 입술은 참된 지식을 간직해야 하고 사람들은 그들의 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목사님들의 입술은 참된 지식을 간직해야 하고 사람들은

그들의 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목사님들은 바른길에서 떠나

잘못된 그들의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계명을 행할 때에

편파적이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셨습니다

(참고: 말라기 2:7-9, 현대인의 성경).

## 목사들의 영광이 사라질 때 ...

목사들의 영광이 사라질 때

그들의 통곡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 스가랴 11:3, 현대인의 성경).

## 목자가 자기 양떼를 구출하듯 ...

목자가 자기 양떼를 구출하듯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자녀들인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므로

우리가 면류관의 보석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날 것입니다.

그 때 우리의 매력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참고: 스가랴 9:16-17, 현대인의 성경).

## 문제는 가정이 아니라 겸손한 자를 죄 짓게 하는 교만한 우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죄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큰 멍돌 짝을 달아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죄 짓게 하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불행이 닥칠 것이다. ...

죄 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4, 6-7, 현대인의 성경).

누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죄 짓게 할까요?

자기를 높이며 스스로 잘 난체하는 교만한 사람이 그리하지 않나요?

혹시 지금 우리가 스스로 잘 난체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닌가요?

혹시 지금 우리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죄 짓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에게만 불행이 닥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둘째 치고 우리 가정에도 불행이 닥칠 수 있지 않을까요?

문제는 가정이 아니라 겸손한 자를 죄 짓게 하는 교만한 우리일 수 있습니다.

## 믿음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섬기다가 ...

좋은 씨앗인 하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은  
좋은 씨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께서 오라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13:37-38, 43, 현대인의 성경).

### "바로 그 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한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시려 그의 집으로 가시는데  
“바로 그 때 12 년 동안 피를 흘리며 앓던 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 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녀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현대인의 성경) “딸아, 용기를 내어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자 “바로 그 순간에” 그녀의 병이 나았습니다  
(마태복음 9:19-22,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바로 그 때”(20 절, 현대인의 성경)란 말씀과  
“바로 그 순간에”(22 절, 현대인의 성경)이란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 생각난 성경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6 장 2 절 하반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31, 현대인의 성경).

## 바리새인과 같은 교인들은 안식일(주일)에 ...

바리새인과 같은 교인들은 안식일(주일)에 병든 사람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사람의 영광이 들어나는 사람 중심된 예배를 훨씬 더 중요시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인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만든 법을 더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12:7-12, 현대인의 성경).

## 바리새인들이야 말로 “귀신의 왕 사탄의 도움”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시자 사람들은 다 놀라 “이분이 혹시 다윗의 후손이 아닐까?”하고 말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은 귀신의 왕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22-24, 현대인의 성경). 그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다”(이사야 11:1, 현대인의 성경)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길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을 때 “이분이 혹시 다윗의 후손이 아닐까?”하고 말했을 텐데 ... 어떻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의 왕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하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리새인들은 “왕 중의 왕”(디모데전서 6:15, 공동번역) 또는 “왕들의 왕”(요한계시록 17:14, 현대인의 성경)이신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의 왕 사탄의 도움”을 받는 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아비인 마귀(사탄)의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요한복음 8:44,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야 말로 “귀신의 왕 사탄의 도움”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다윗의 후손이시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의 왕 사탄의 도움”을 받는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 반드시 낮아질 것입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질 것 같은 사람은 반드시 낮아질 것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11:23).

## 범죄한 사람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

하나님의 형벌 중에는 회개치 않는 범죄한 사람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 그들의 부를 바다에 던지므로 그들이 소멸될 것입니다

(참고: 스가랴 9:4, 현대인의 성경).

## 보잘 것 없는 제 인생을 주님께 받치면 ...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은 많은 군중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하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이리 가져오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군중들을 풀밭에 앉히시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받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약 5,000 명)은 모두 실컷 먹고

남은 조각을 열 두 광주리나 거뒀습니다(마태복음 14:14-21,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1) 저 같이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밖에 안 되는 인생을 통해서도

전능하신 주님은 충분히 남자만 약 5,000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사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2) 보잘 것 없는 제 인생을 주님께 받치면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십니다.

## 부모님은 ‘사랑하는 아들/딸아, 너는 우리에게로 돌아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집을 나가 자기 멋대로 허랑방탕하면서  
죄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님은 ‘사랑하는 아들/딸아,  
너는 우리에게로 돌아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 스가랴 1:3, 누가복음 15:11-32, 현대인의 성경)

##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이려고 선한 일을 하고 있으니 ...

나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이려고 선한 일을 하고 있으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6:1, 현대인의 성경).

##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 ...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서 큰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5:11-12, 현대인의 성경).

## “사람은 함부로 지껄인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 날에 해명을 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함부로 지껄인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 날에 해명을 해야 한다.  
네가 한 말에 따라서 네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할 것이다”  
(마태복음 12:36-37, 현대인의 성경).

##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참고: 마태복음 16:26, 현대인의 성경;  
마가복음 8:35; 사도행전 20:24).

## 서로 싸워 갈라지면 ...

어느 나라이든지, 어느 교회이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서로 싸워 갈라지면 오래가지 못하고 망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12:25, 현대인의 성경).

## 선한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고생하는 성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고생하는 군중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 달라고 간청하여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36-38, 현대인의 성경).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선한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고생하는 성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 성경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

비록 성령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만  
성경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그로 하여금 물러가게 만듭니다  
(참고: 마태복음 4:1-11; 야고보서 4:7, 현대인의 성경).

##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하시사 ...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하시사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 귀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속히 하게 하시며,  
우리 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13:13-15, 현대인의 성경).

## 성령충만한 그리스도인은 ...

성령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참고: 마태복음 3:17).

##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관세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17:24-27, 현대인의 성경).

## 세레 요한의 죽음을 생각할 때 참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레 요한은 헤롯 왕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에 대해  
“당신은 그 여자와 결혼한 것은 잘못입니다”하고 말했었습니다.

그 일로 헤롯 왕은 세레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에  
그들을 두려워하므로 옥에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였으므로 그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그녀에게 맹세하며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어머니인 헤로디아가 시키는 대로  
“세레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제게 주십시오”하고 요구했습니다.

헤롯 왕은 몹시 괴로웠으나 자기가 한 맹세와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손님들 때문에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  
갈혀 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자  
그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인 헤로디아에게 가져갔습니다  
(마태복음 14:3-11,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1)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헤롯 왕에게  
‘그것은 잘못입니다’하고 말했다고 세레 요한을 죽이고 싶어한 헤롯 왕을 생각할 때  
우리도 세레 요한처럼 세상적으로 우리 보다 권력이 있어 힘이 센 사람에게  
그가 잘못된 것에 대해 ‘그것은 잘못입니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헤롯 왕은 세레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혼한 헤로디아는 자기 딸을 통해 결국 세레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세레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이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여자라 생각합니다.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여왕이 생각납니다.

그 이유는 이세벨은 나뭇을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입니다.

(3) 세레 요한의 죽음을 생각할 때 참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그의 죽음은 귀중한 것이라 믿습니다(시편 116:15).

## 소금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어 버려지는  
소금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참고: 마태복음 5:13, 현대인의 성경).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은 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은 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11:28, 현대인의 성경).

## 슬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

슬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5:4, 현대인의 성경).

## 신성을 모독한 죄?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 것은  
어떤 서기관들의 관점으로 볼 때에 신성을 모독한 죄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으신 데  
예수란 사람도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그 중풍병자를 통해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2-3, 6).  
그러나 실제로는 그 서기관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고: 요한복음 10:30).

##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 증거하는 자와  
고용인의 임금을 속이는 자,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을 억압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죄상을 드러낼 것입니다  
(참고: 말라기 3:5, 현대인의 성경).



## 아버지가 효성이 지극한 자기 아들을 아끼듯이 ...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두려워(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아버지가 효성이 지극한 자기 아들을 아끼듯이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을 아끼고 계십니다  
(말라기 3:16-17, 현대인의 성경).

## 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상속자인 부자의 자녀를 죽여서라도  
그 자녀가 받을 유산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21:37-38, 41, 현대인의 성경).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하면  
큰 죄를 범하는 것인 줄 알고 지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이 만든 법을 마치 하나님의 교훈인 것처럼 가르쳐서  
(참고: 마태복음 15:9,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하면  
큰 죄를 범하는 것인 줄 알고 지냈던 때가 생각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만든 “안식일 규정”은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읽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고: 12:2, 5, 현대인의 성경).

##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선한 사람은 마음 속에 쌓인 선으로 선한 말을 하지만

악한 사람은 마음 속에 쌓인 악으로 악한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교인들은 마음에 가득찬 것이

악이기에 결코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33-35, 현대인의 성경).

## “예,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눈을 떠서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두 소경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사자 그 소경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예,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소경들은 눈을 떴습니다(마태복음 9:27-30, 현대인의 성경).

우리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

우리의 간절한 소원 기도를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9:35).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길 기원합니다.

##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교인들은 ...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교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모이지 않는 교인들은 교회 사람들을 흠어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12:30, 현대인의 성경).

##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한 점이나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참고: 마태복음 5:18; 민수기 23:19;  
이사야 55:11, 현대인의 성경).

##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시요 선생님이신 예수님보다  
높을 수가 없고 또한 높아서도 안 되겠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10:24-25).

## 예수님을 닮지 못한 세상적인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주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두 형제의 아버지는 세베대였고 그들의 어머니는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그녀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게 “저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0:20-21, 현대인의 성경). 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그리 부탁을 드렸을까요?  
물론 그녀는 자기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기에  
그리 부탁한 것이지만(22 절, 현대인의 성경) 그녀의 궁극적인 의도는  
자기의 두 아들이 크게 되고 으뜸이 되길 원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녀의 말을 듣고 (그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뺀)  
화를 내는 열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26-27 절,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는데(28 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그녀의 두 아들이 섬김을 받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닮지 못한 세상적인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주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무엇입니까?  
(참고: 마태복음 5:46-47, 현대인의 성경)

##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 셧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님께 가서 이 일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혼자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4:12-13, 현대인의 성경).  
요한의 제자들이 머리와 몸이 분리되 있었을  
자기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지체를 가져다가 장사했었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떠하였었을까요?  
혼자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가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 셧었을까요?

##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아라.' 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정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다”  
(마태복음 5:27-28, 현대인의 성경).

##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일도 없는데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아내로 간음하게 하는 자이며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자이다”  
(마태복음 5:32, 현대인의 성경).

##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자기 부모나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10:37-39, 현대인의 성경).

##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16:24-25, 현대인의 성경).

## 예수님이 지금의 성전에 들어오신다면 쫓아내실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의 성전에 들어오신다면 쫓아내실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금도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나요?

예수님께서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나 돈 바꿔 주는 사람들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다 쫓아내셨지만

예수님께 나온 소경들과 절뚝발이들은 고쳐주셨습니다

(참고: 마태복음 21:12-14, 현대인의 성경).

**온 세상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온 세상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선포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12:18, 현대인의 성경).

**옳다 함을 얻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11:19).

##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손을 얹어 축복해 달라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그 사람들을 꾸짖은 것일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손을 얹어 축복해 달라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그 사람들을 꾸짖은 것일까요?

혹시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임을 몰라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요?

(참고: 마태복음 19:13-14, 현대인의 성경)

혹시 그 이유는 그들이 “이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 나라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지에 대해

관심이 많은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참고: 마태복음 18:1-4; 누가복음 22:24, 현대인의 성경)

## 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 키를 한 치라도 더 늘릴 수 없건만

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6:25, 27, 30, 31, 현대인의 성경)



## 왜 이리 나는 기도할 때 쓸데없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지 ...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닌데

왜 이리 나는 기도할 때 쓸데없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지 ...

(참고: 마태복음 6:7, 현대인의 성경)

우리 마음 속으로라도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인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다면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12:7,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인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으므로

(참고: 22:29, 현대인의 성경) 우리 마음 속으로라도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 두어야 합니다.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습니다

(참고: 마태복음 6:19-21, 현대인의 성경).

##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명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명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우왕좌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참고: 스가랴 1:9, 현대인의 성경; 잠언 3:5; 로마서 8:28; 12:2).

## 우리 이웃은 사랑하고 우리 원수를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된 도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는 구약의 율법대로 우리 이웃은 사랑하고

우리 원수를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참고: 마태복음 5:43-45, 현대인의 성경)

##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평화를 위해서 ...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평화를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서로 해할 음모를 꾸미고  
거짓 맹세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참고: 스가랴 8:16-17, 현대인의 성경).

##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성실과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성실과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는 힘써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참고: 스가랴 8:8, 9, 현대인의 성경).

## 우리 힘으로나 능력으로도 되지 않지만 ...

우리 힘으로나 능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됩니다!  
(참고: 스가랴 4:6, 현대인의 성경)

##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 마태복음 6:12, 15, 현대인의 성경).

##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친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친히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9:8, 현대인의 성경).

##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만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서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하고 말한다”

(말라기 3:13, 현대인의 성경).

## 우리가 보기엔 이런 일이 전혀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

우리가 보기엔 이런 일이 전혀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참고: 스가랴 8:6, 현대인의 성경).

## 우리는 가정의 불행을 접해서라도 ...

우리는 가정의 불행을 접해서라도 우리의 교만함을 깨닫고 회개하여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서 하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18:7-9,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낮추는 “이런 어린 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예수님의) 아버지를 항상 뵈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10 절, 현대인의 성경).

## 우리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우리를 구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고통에 대해서 두 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참고: 스가랴 9:11-12, 현대인의 성경).

##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구해야 합니다.

구하되 우리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로  
남자만 5,000 명을 먹이신 주님께 거룩한 말씀이요  
진주같은 값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7:6-11; 요한복음 6:5-13,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 신명기 8:3).

## 우리는 그 말씀대로 생활하여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속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생활하여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속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통이나 핍박이 와도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서 요동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재물의 대한 유혹도 넉넉히 이기면서

100 배, 60 배, 또는 30 배의 열매를 맺어드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 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13:19-23, 현대인의 성경).

## 우리는 그저 '예' 할 것은 '예' 하고 ...

우리는 그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말해야 합니다.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5:37, 현대인의 성경).

## 우리는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

우리는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줄 믿어야 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21:21-22, 현대인의 성경).

## 우리는 내일을 일을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일을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도 됩니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충분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6:34, 현대인의 성경).

## 우리는 노래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머물고 계시기에

우리는 노래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참고: 스가랴 2:10).

## 우리는 더 이상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지

아니면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을 걸어가야 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는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을 걸어가는데 모습을 본다면 할지라도

생명에 이르는 작은 문과 좁은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여

그 문으로 들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7:13-14; 열왕기상 18:21, 현대인의 성경;

신명기 2:27; 5:32; 17:11, 20; 28:14).



##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그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10:29-31, 현대인의 성경).

## 우리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말씀대로 우리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4:4, 7, 10, 현대인의 성경).

##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여기 저기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길 기원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4:23, 25).

##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5,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영접해야 합니다(참고: 4 절,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혹시 지금 우리는 스스로 낮추는 사람보다  
스스로 잘 난체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은 사람을  
영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참고: 로마서 12:16, 현대인의 성경)

##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 젊어서 얻은 우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신 목적은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  
젊어서 얻은 우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혼 자체를 미워하며  
자기 아내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하는 자를 미워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을 지켜 너희 아내에게 신의를 저버리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젊어서 결혼한 우리 아내에게  
신실하지 않고 그녀에게 신의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고: 말라기 2:14-16, 현대인의 성경).

##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참고: 마태복음 17:5, 현대인의 성경).

## 우리는 이러한 거짓 목사들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거짓 목사들의 행동을 보고  
그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짜 목사는 비록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의 속은 굶주린 이리떼와 같습니다(참고: 마태복음 7:15-16, 현대인의 성경).  
가짜 목사는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좋아합니다(참고: 누가복음 16:14).  
그러므로 가짜 목사는 마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여(누가복음 11:39)  
족할 줄 모르는 탐욕 속에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합니다(참고: 이사야 56:11).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 가짜 목사는 교회 강단에서 입술로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편 18:1)라고 힘차게 설교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돈은 나의 힘이다’ 라고 믿고 돈을 축적하기에 바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매우 좋아보이는데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돈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 목사는 입술로는 회개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만한 바른 행동이 없습니다  
(참고: 마태복음 3:8, 현대인의 성경). 못된 나무와 같은 거짓 목사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만 맺기 마련입니다(참고: 7:17-18, 현대인의 성경).  
거짓 목사는 그의 아바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 목사는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바인  
마귀가 원하는 거짓말하기를 좋아합니다(참고: 요한복음 8:44,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이러한 거짓 목사들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이 거짓 목사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7:15, 20, 현대인의 성경).

##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뱃속을 거쳐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이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그리고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참고: 마태복음 15:10-11, 17-20, 현대인의 성경).

## 우리는 주님의 종을 몰라보고 함부로 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재림)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주님의 종을 몰라보고 함부로 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참고: 마태복음 17:12-13, 현대인의 성경).

##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과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지 말고

남을 해칠 계획을 꾸미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스가랴 7:9-10).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 합니다.

우리는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되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7:21, 24-25,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고: 스가랴 6:15, 현대인의 성경).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참고: 스가랴 9:15, 현대인의 성경).

##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몸은 죽여도 우리 영혼은 죽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과 우리 몸을 지옥에서

다 멸망시킬 수 있으신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10:26, 28, 현대인의 성경).

##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참고: 스가랴 3:2, 현대인의 성경).

## 우리아 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영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

우리아 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13:16, 현대인의 성경).

##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를 얻기 위해서는 ...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형제와 단둘이 만나 그의 잘못을 타일러야 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18:15, 현대인의 성경).

만일 그 형제가 자기를 낮추는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면

(참고: 4 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말을 들을 것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 위대한지 서로 다투는 교만한 사람이면

(참고: 누가복음 22:24; 로마서 12:16, 현대인의 성경)

우리 말을 결코 듣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참고: 마태복음 6:8-9, 현대인의 성경).

## 우리의 믿음이 크면 ...

우리의 믿음이 크면 우리에게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17:20, 현대인의 성경).

## 우리의 생활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칭의)을 받은 우리의 생활은  
율법학자(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5:20, 현대인의 성경).

## 위선자들에게서 우리는 떠나가 버려야 합니다.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면서 불신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기적을 보여달라고만 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위선자들에게서 우리는 떠나가 버려야 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16:1-4, 현대인의 성경).

## 위선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

위선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입술로는 “예”하고 순종할 것처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아니오”하고 그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21:28-29, 현대인의 성경).



## 위선자처럼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보이는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있으니 ...

나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갇아주실 줄 믿고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데 계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할 텐데  
위선자처럼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보이는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있으니 ...  
(참고: 마태복음 6:5-6, 현대인의 성경)

## 유혹 때문에 그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지요?

혹시 우리는 하늘 나라의 말씀은 듣지만  
이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그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지요?  
(참고: 마태복음 13:22, 현대인의 성경)

##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11:6, 현대인의 성경).

## 이 악한 세대는 ...

이 악한 세대는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12:45, 현대인의 성경).

**이것은 주님을 헛되이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은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하나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법을 마치 주님의 교훈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헛되이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15:7-9, 현대인의 성경).

**이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참고: 마태복음 13:8, 현대인의 성경).

## 이리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양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시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10:16, 현대인의 성경).

## 인생의 큰 폭풍이 휘몰아쳐서 가정이란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

인생의 큰 폭풍이 휘몰아쳐서 가정이란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참고: 마태복음 8:24, 현대인의 성경)

저는 임마누엘 하나님(마태복음 1:23)을 믿는 믿음으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새 찬송가 413 장 “내 평생에 가는 길” 1 절과 후렴)라고 찬양하면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다

(참고: 데살로니가후서 1:7; 히브리서 4:11, 공동번역).

## 입술로만 주님을 존경하고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위선자들은 ...

입술로만 주님을 존경하고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마태복음 15:8, 현대인의 성경) 위선자들은  
주님의 종을 통하여 올바른 길을 가르침 받아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으로 여기고 취급하는 세리와 창녀같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믿는 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참고: 마태복음 21:32, 현대인의 성경).

## 자기 집안 식구입니다.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10:36).

## 재물은 우리의 주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은 우리의 주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참고: 마태복음 6:24,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언제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을 걱정입니까?  
(참고: 열왕기상 18:21, 현대인의 성경)

## 재산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다 지키다 할지라도 ...

재산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다 지키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부족한 것은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 근심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19:16-22, 현대인의 성경).

## 저는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은 위선자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교회에서 설교로나 또한 인터넷 웹사이트에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나팔을 불고 있으니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은 위선자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6:2, 현대인의 성경).

##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쩌면 신앙 생활이란 ...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하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24-26,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쩌면 신앙 생활이란

- (1)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 가는 것이요 또한
- (2)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저는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 나라에게 위대한 사람은 가장 작은 계명이라 할지라도  
그 계명을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작은 사람은 그 계명을 어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5:19, 현대인의 성경).

## 저희 집 강아지 루나는 ...

저희 집 강아지 루나는 저희 부부가 식탁에서 식사할 때  
음식을 마루 바닥에 던지면 곧장 주어 먹습니다.  
어제도 저희 부부가 식탁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강아지 루나가 자기도 먹을 것을 달라고  
자기 밥그릇을 자기 발로 자꾸만 차서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음식을 그 밥그릇에 넣어 주니까  
우리 집 강아지 루나는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서 신나게 잘 먹었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악한 귀신이 들린 딸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정말 네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고 “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이 나왔습니다  
(참고: 마태복음 15:22-28, 현대인의 성경).

##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진심으로 내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축복이 저주가 되게 하겠다.

너희가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사실 나는 이미 너희를 저주하였다.

내가 너희 자녀를 벌할 것이며 너희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니 너희가 똥처럼 던져질 것이다”

(참고: 말라기 2:1-3, 현대인의 성경).

##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선자들의 가르침을 조심해야 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16:12, 현대인의 성경).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하고자 “안식일에 규정”을  
어기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정죄할 구실을 찾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이 만든 “안식일의 규정”을 확고히 믿고 따르며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기에(관심도 없기에?)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하고자 “안식일에 규정”을 어기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정죄할 구실을 찾습니다

(참고: 마태복음 12:2, 5, 7, 10, 현대인의 성경).

##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재림)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주님의 종은 모든 것을 바로잡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재림)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주님의 종은 모든 것을 바로잡습니다.  
그러나 바로잡히기를 거부하는 완강한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자들은 그 주님의 종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의 종은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17:11-13, 현대인의 성경).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했다가  
3 일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사도 베드로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하고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를 보시고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마태복음 16:21-23, 현대인의 성경).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사랑하는 식구나 사람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는 것을 원치 않게 만드므로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하고  
그 식구나 그 사람을 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섬기기만 하면 가정은 돌보지 않아도(희생해도) 된다고 배웠던 교회 전통 때문에 ...

누구든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위선자들은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섬기기만 하면  
가정은 돌보지 않아도(희생해도) 된다고 배웠던 교회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한 것은 아닌가요?  
(참고: 마태복음 15:5-7, 현대인의 성경)

## 주님께서 그 목사님들을 좋아하여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목사님들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하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더럽고 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더럽히는 것이요  
주님께서 그 목사님들을 좋아하여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참고: 말라기 1:7-9, 현대인의 성경)

주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만져주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 종류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님 안에서 저의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만져주시사  
그들의 질병이 다 떠나가서 그들이 일어나  
주님을 다시금 수종들 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8:14-15).

### 주님께서 말씀으로 ...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병든  
우리의 마음을 다 고쳐 주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8:16).

###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기초를 놓으셨으므로 ...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기초를 놓으셨으므로  
주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참고: 스가랴 4:9, 현대인의 성경)

##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사 깨끗하게 하시므로 ...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사 깨끗하게 하시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 드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참고: 말라기 3:2-4; 로마서 12:1, 현대인의 성경).

##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나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있는 자가 3 일이나 된 군중들(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약 4,000 명)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기에 그들을 굶겨서 그대로 보내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벌판에서 이처럼 많은 군중들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하고 말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빵이 일곱 개가 있고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군중들을 땅에 앉히시고 빵 일곱 개와 그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 군중들은 모두 실컷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나 거뒀습니다  
(마태복음 15:32-38, 현대인의 성경).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생명의 빵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나눠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아먹고  
힘을 얻어 그 고통을 넉넉히 견뎌내고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요 승리하는 교회를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참고: 마태복음 16:18; 고린도전서 10:4).

## 주님은 세상 사람들의 저춧거리가 된 교회를 구원하여 축복의 표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의 저춧거리가 된 교회를  
구원하여 축복의 표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으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스가랴 8:13, 15, 현대인의 성경).

##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느냐?”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느냐?”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에게 돌아갈 십일조와 예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도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 말라기 3:8, 현대인의 성경).

## 주님은 우리에게도 철저하게 참으시는 인내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우리 세대를 향하여

“너희를 보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고: 마태복음 17:17, 현대인의 성경).

그 주님께서 마치 사울(바울)에게 철저하게 참으시는 인내를 보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철저하게 참으시는 인내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참고: 디모데전서 1:16, 현대인의 성경).

## 주님은 우리의 죄만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침대에 누워 있는 중풍병자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중풍병도 고쳐 주셨습니다(마태복음 9:1-7, 현대인의 성경).

주님은 우리의 죄만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고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 주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심일조를 성전에 바쳐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으시는지 부으시지 않으시는지

주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고: 말라기 3:10, 현대인의 성경).

## 주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이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하늘 나라에 계신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의 계산법과  
이 땅에 사는 우리의 계산법이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계산법은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일곱 번까지만 용서하면 되겠다는 생각하는데  
주님의 계산법은 “일곱 번만 아니라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용서하여라”입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는 주님은 죄 지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우리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결핍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참고: 마태복음 18:21-35, 현대인의 성경).

##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리스도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리스도인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하고 외치므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3:2-3, 현대인의 성경).

##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나는 사람이야 말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자들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나는 사람이야 말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자들입니다.  
그들은 눈먼 인도자들입니다. 소  
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질 것입니다.  
위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나무로서 모두 뽑힐 것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15:11-14, 현대인의 성경).

## 주님의 종인 목사님들은 ...

주님의 종인 목사님들은 주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참고: 스가랴 3:7, 현대인의 성경).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응답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우리는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18:18,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드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6:12, 현대인의 성경)라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응답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우리는 ...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길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 말라기 3:1, 현대인의 성경).

## “주여, 주여”하고 부르짖지만 ...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 “주여, 주여”하고 부르짖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7:21, 26, 현대인의 성경).

## 죽음에 대한 공포로 주님께 “주님, 살려 주십시오”하고 부르짖는 ...

죽음에 대한 공포로 주님께 “주님, 살려 주십시오”하고  
부르짖는 믿음이 적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인생의 바람을 꾸짖으시사 우리 인생에 휘몰아치고 있는  
큰 폭풍을 아주 잔잔하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8:24-26, 현대인의 성경).



## 즉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남겨 두고 즉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4:19-22, 현대인의 성경).

##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주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 가정과 교회도 끄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에게만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12:20-21, 현대인의 성경).

## 진리의 교회, 거룩한 교회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진리의 교회'와  
'거룩한 교회'라고 불러 주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스가랴 8:3, 현대인의 성경).

## 진실과 평화

우리는 진실과 평화를 사랑해야 합니다  
(참고: 스가랴 8:19, 현대인의 성경).

## 진실된 진짜 목사님

진실된 진짜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그분은 위선자인 서기관들과는 달리

권위 있는 분 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참고: 마태복음 7:5, 24, 29, 현대인의 성경).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만한 바른 행동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독사의 자식들은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만한 바른 행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마태복음 3:8, 10, 현대인의 성경).

**“천국(하늘 나라)이 가까이 왔다”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천국(하늘 나라)이 가까이 왔다”고 전해야 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10:6-7, 현대인의 성경).

## 평안하기를 빌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야 합니다.  
만일 그 집이 우리 평안의 축복을 받을 만하면  
우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내릴 것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10:11-13,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 언제까지(how long) ...?'

여러가지 괴로운 일들로 말미암아 만일 우리가 극심한 고통이 지속되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견딜 한계를 느낄 때에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충분히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How long) 보고만 계시겠습니까?'(참고: 시편 35:17,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 이런 일이 언제까지(How long) 계속되겠습니까?'(참고: 89:46; 90:13, 현대인의 성경),  
'내가 언제까지(How long) 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 지내야 합니까?'(참고: 13:2,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 언제까지(How long)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참고: 13:1),  
'하나님, 내 마음이 심히 괴로운데 언제까지(How long) 기다리겠습니까  
/지체하시렵니까?'(참고: 6:3, 현대인의 성경/새 번역),  
'하나님, 언제까지 제 기도를 거절하시겠습니까?'(참고: 80:4, 현대인의 성경).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주님께서 언제나(How long)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겠습니까?'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스가랴 1:12, 현대인의 성경). 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그럽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며 너를 단련시켜 정금같은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넘치도록 축복하여 풍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로하고 축복하노라'  
(참고: 스가랴 1:13-17; 욥기 23:10; 시편 62:6; 마태복음 16:18,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참고: 스가랴 8:22).

##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므로 ...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참고: 스가랴 10:12,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스가랴 12:10,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은 딸을 살리실 수 있는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9:18, 현대인의 성경). 그 결과 그는 그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그의 죽은 딸의 손을 잡으시매 그녀가 곧 일어났습니다(25 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회당장의 믿음을 생각할 때 히브리서 11 장 19 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받은 셈입니다”(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하게 하여 용사와 같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포도주를 마신 것같이 기쁠 것이요

그들의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참고: 스가랴 10:6-7,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참고: 스가랴 9:1-2,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께서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

하나님께서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 버리셨으므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고  
우리 머리에는 “깨끗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참고: 스가랴 3:4-5,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께서서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서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는 법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라면 어째서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내가 너의 주인이라면 어째서 너희는 나를 존경하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서도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만일 지금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목사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과연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입술로만 존경(공경)하고  
행동으로는 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고  
자문하고 자아성찰해야 하지 않을까요?  
(참고: 말라기 1:6,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하고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말라기 1:2,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지런히 그리고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지런히 그리고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리고 거듭 무시하면,  
우리는 사랑의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그 때서야 우리는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 ‘하나님께서 저의 행위대로  
저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저에게 행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 스가랴 1:6; 히브리서 12:5-6,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참고: 말라기 3:6; 야고보서 1:17,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을 두려워(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

하나님을 두려워(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잘 되며

하나님을 시험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용없는 일이며

그의 명령을 지키고 우리 죄를 슬퍼하며 탄식해 봐야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참고: 말라기 3:14-15,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참고: 마태복음 12:28).



## 하나님의 뜻은 ...

하나님의 뜻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3:15,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의 명령에 “예”하고 말한 후 불순종하는 것보다 ...

하나님의 명령에 “예”하고 말한 후 불순종하는 것보다  
“아니오”하고 말한 후 불순종하려 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순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려 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참고: 마태복음 21:28-31,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의 아들/딸이라 불리는 우리는 ...

하나님의 아들/딸이라 불리는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요  
화평을 지키는 사람들이기에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5:9, 24; 마가복음 9:50; 로마서 12:18;  
고린도후서 5:18-19; 데살로니가전서 5:13, 현대인의 성경).

## 하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하늘 나라에서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하고 물었는데

왜 예수님께서서는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너희가 변화되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하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8:1-4, 현대인의 성경)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누가복음 22 장 24 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위대하냐”고 하는 문제로

말다툼이 생긴 것을 보면 그들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묵상케 하신 로마서 12 장 16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십시오. 스스로 잘난 체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가장 위대”한 것에 대해 관심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예수님처럼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어 합시다.

그리할 때 스스로 잘 난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 하늘 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

하늘 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와서 우리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 버립니다

(참고: 마태복음 13:19, 현대인의 성경).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두 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합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고: 마태복음 18:19-20, 현대인의 성경).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재산을 많이 쌓아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하는 부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참고: 마태복음 19:21-23, 현대인의 성경).

하루 종일 놀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일꾼인데 ...

하루 종일 놀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일꾼인데 무엇이 관대  
주님께서서는 저 같은 사람도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 마태복음 20:1-7, 현대인의 성경).

## 한 명이라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를 낫추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참고: 마태복음 18:4, 12, 14, 현대인의 성경).

##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고: 마태복음 13:11, 현대인의 성경).

## 혹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고집이 세고 악하기 때문에 아내가 음행한 일도 없는데 ...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음행한 일도 없는데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고집이 세고 악하기 때문에

아내가 음행한 일도 없는데 그녀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여 간음죄를 짓는 것은 아닌지요?

(참고: 마태복음 19:7-9, 현대인의 성경)

## 혹시 지금 우리는 교회 전통 때문에 ...

혹시 지금 우리는 교회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참고: 마태복음 15:3, 현대인의 성경)

**홀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군중을 다 보내신 후에

기도하시려고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날이 저문데도

그곳에 홀로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마태복음 14:23, 현대인의 성경)

저는 사람들과 분리하여 홀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금 받습니다.

저의 사역의 중추(backbone)는

주님과 홀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어야 합니다.

##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하고 전파하셨으니

우리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참고: 마태복음 3:2; 4:17).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목격하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11:20-21, 현대인의 성경).